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2025. 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 (추진배경)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정주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
 - 이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3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축, '24년에 이어 '25년 공식 공표
- (목적)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지표를 구축하고 지수화하여, 정주여건, 지역발전 수준, 정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영역별 객관적 자기 평가 통해 자발적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 방향 설정 유도
 - 선형변환 방법 통한 지표 표준화 및 가중치 적용을 통해 5개 영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20개 지표의 지수 산출
- (결과) 12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은 39.6점이며, 농어촌 군 지역은 37.26점, 도농복합시는 43.29점
 - 농어촌 군은 경제 및 문화공동체 영역에서 긍정적이며, 도농복합시는 보건·복지 및 환경·안전, 지역활력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 (경제) 도농복합시가 GRDP·재정자립도, 농어촌 군은 고용률에서 우세
 - (보건·복지) 도농복합시와 농어촌 군 간 자살사망률 지표는 유사한 수준이나, 기대수명과 보건복지비율에서 농어촌 군 지역이 낮은 편
 - (문화·공동체) 농어촌 군이 도농복합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으며, 도농복합시는 문화시설접근성이 용이
 - (환경·안전) 도농복합시가 농어촌 군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
 - (지역활력) 청년인구 유지와 교통 접근성에서 도농복합시가 상대적 우위



목 차



I. 추진배경	01
II.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개요	02
III.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04
1. 종합지수	04
2. 영역별 지수	09

I. 추진 배경

-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정주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

* 농가인구 ('21) 221.5만 명 → ('22) 216.6만 명 → ('23) 208.9만 명 → ('24) 200.4만 명
고령인구비율 ('21) 46.8% → ('22) 49.8% → ('23) 52.6% → ('24) 55.8%(통계청, 2025)

-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 증가하고, 필수 생활 서비스 시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

* 인구감소지역 612개 면 중 약국 없는 면: ('10) 345개 → ('20) 362개, 음식점 없는 면 ('10) 86개 → ('20) 144개(KREI, 2022)

-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23년에 구축 '24년 공표

- 기존 농어촌 정책들이 개별 사업과 성과 위주로 평가되던 한계를 보완하고, 삶의 질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주관적·객관적 지표를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축

- '25년 평가는 전년도 공표된 지표 체계를 기반으로, 연차별 변동성과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삶의 질 수준 변화를 점검하는데 목적

- 5대 영역 20개 지표를 중심으로 농어촌 군과 도농복합시 간 차이를 분석
- 지수를 통해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강점과 보완 분야를 식별하고,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I.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개요

- (목적)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수치화하여, 정주여건, 지역발전 수준, 정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축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태를 진단하고 취약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지표로 기능
- (구성)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5개 영역 ①경제, ②보건·복지, ③문화·공동체, ④환경·안전, ⑤지역활력으로 구성

<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 >

	경제(4개)	보건·복지(4개)	문화·공동체(4개)	환경·안전(4개)	지역활력(4개)
내용	▶ GRDP(+) ▶ 고용률(+) ▶ 시군구 사업체 수(+) ▶ 재정자립도(+)	▶ 자살사망률(-) ▶ 기대수명(+) ▶ 긴급복지지원율(-) ▶ 보건복지예산 비율(+)	▶ 삶의 만족도(+) ▶ 문화시설 접근성(-) ▶ 사회활동 참여율(+) ▶ 가족관계 만족도(+)	▶ 빈집률(-) ▶ 지역안전도(+) ▶ 하수도보급률(+) ▶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처리량(+)	▶ 합계출산율(+) ▶ 인구 증감률(+) ▶ 청년인구 비율(+) ▶ 교통접근성(-)

주: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 각 지표는 특성(순방향·역방향)에 따라 최대값과 최소값 기준으로 선형화 (Min-Max Normalization) 되었으며, 이를 통해 0~1점 범위의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
- 표준화된 지표에 전문가 가중치*를 적용하여 20개 지표와 5개 영역의 삶의 질 지수 산출

*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 통해 영역 및 세부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산출

- 표준화 지표의 가중평균으로 영역지수를, 영역별 지수 가중평균으로 종합 지수를 도출하고, 지숫값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100점 만점으로 변환

<지수 산출 방법>

* (예시)경제영역 지수

$$= \{(\text{GRDP} \times \text{지표가중치}) + (\text{고용률} \times \text{지표가중치}) + (\text{사업체수} \times \text{지표가중치}) + (\text{재정자립도} \times \text{지표가중치})\} \times 100$$

* 종합지수 = (영역별 지수 × 영역가중치)의 합

- 본 지수는 해당 연도의 지역 간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수치이므로, 연도 간 절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공개) 139개 농어촌 시·군에서 도시형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129개 시·군의 결과를 유형별(농어촌 군, 도농복합시) 상위 30% 발표

- 농어촌을 포함한 시·군을 농어촌 군(79개)과 일반 도농복합시(50개), 도시형 도농복합시(10개)로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용인·창원·화성·청주·남양주·천안·김해·평택·포항시)과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도시형 도농복합시로 분류
 - 도시형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47개 도농복합시와 광역시 내 3개 군(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도농복합시로 분류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개발 및 추진 연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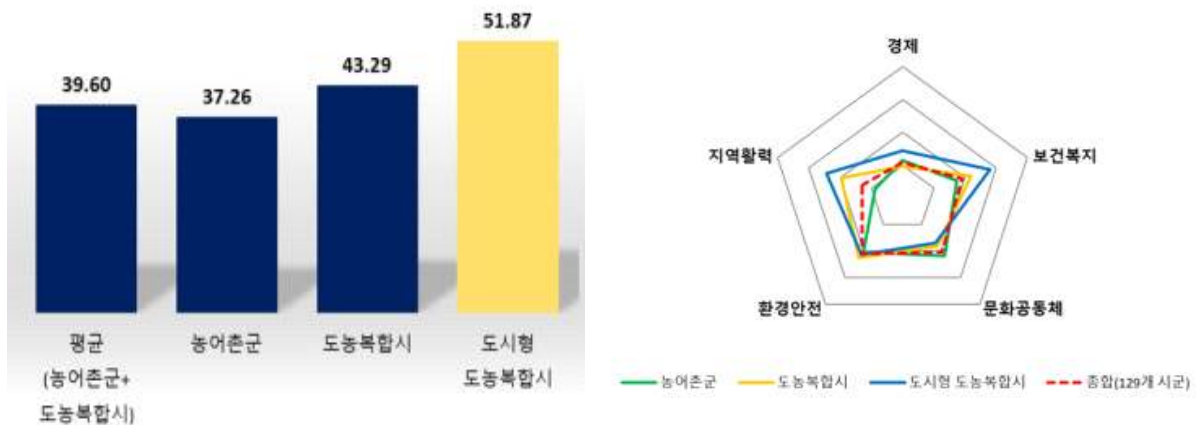
년도	내용
2022년	▶ 삶의 질 전문지원기관(KREI, KMI) 의견수렴 ▶ 「농어촌 삶의 질 지표개선 연구」 추진 관련 관계기관 실무 협의(농식품부, 농촌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 체계 구축 연구」 용역 추진('22.12.~'23.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어업·농어촌 관련 경제, 환경, 삶의 질 관련 정책 형환 파악 및 분석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지수 목표 및 방향 제시, 지수 체계 구축(대분류 8개, 중분류 23개, 세분류 67개 지표 선정 → 5개 분류 19개 세부지표 구성) - 농어촌 삶의 질 모니터링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 제시
2023년	▶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예비조사 및 모니터링 모델 마련 연구」 용역 추진('23.06.~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안) 중 일부 지표 수정 및 자료 구축(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 확정) - AHP 조사를 통한 가중치 설정 및 지표 지수화 시범 추진 ▶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전문가 간담회 개최('23.11.3.) - 삶의 질 관련 정책 담당자 및 연구기관, 학계 등 참석
2024년~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관리위원회 구성('24.3.) 및 운영 중('24.~)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시범 적용 방안 논의 ▶ 2024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공표('24.7.5.)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지자체 설명회 개최('24.8.26.)

Ⅲ.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 2025년 4월 기준 공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수 도출

1 종합지수

- (종합) 12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은 39.6점이며, 농어촌 군 지역의 종합지수는 37.26점, 도농복합시는 43.29점
- 도시형 도농복합시는 51.87점으로, 경제, 보건·복지, 지역활력 영역에서 우위로 나타남



- 농어촌 군은 경제와 문화·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농복합시는 보건·복지 및 환경·안전, 지역활력 영역에서 우세
- 도농복합시는 기반 시설 및 인프라 측면에서 우위를 보였고, 농어촌 군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 기반 활동 지표에서 강점

< 종합 및 영역별 지수 분포 현황(상위 30위) >

구 분	종합지수(갯)	영역별 지수(갯)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농어촌 군	8(5)	21(20)	5(4)	24(24)	13(13)	2(3)
도농복합시	22(25)	9(10)	25(26)	6(6)	17(17)	28(27)

주: ()는 전년도 구성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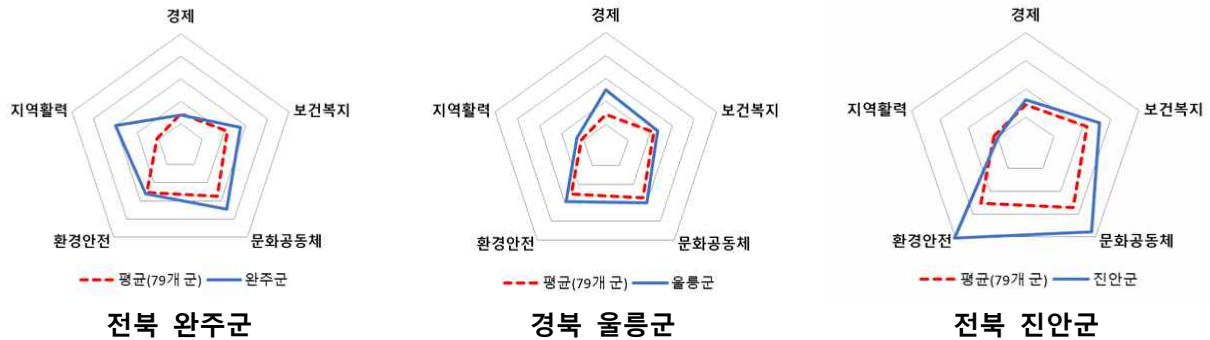
□ (농어촌 군) 경제와 문화·공동체, 지역활력의 일부 지표*에서 높게 평가

* 고용률,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합계출산율

○ 농어촌 군의 종합지수 상위권은 전북 완주군,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순

- 완주군은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지역활력', 울릉군은 '경제', 진안군은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상위권 진입

* 완주군은 전년 대비 **인구증감률** 4.3%p('22) 3% → ('23) 7.3%), **청년인구비율** 0.8%p('22) 20.1% → ('23) 20.9%) 늘었으며, 이는 각 지표별로 농어촌 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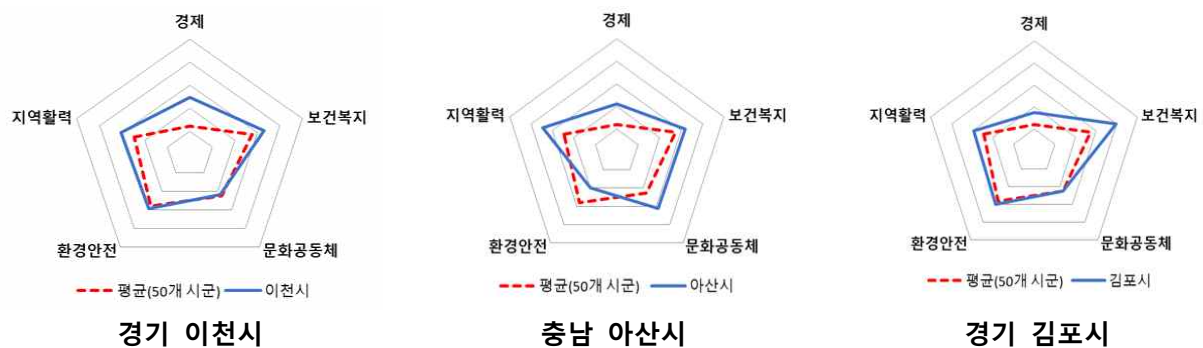
< 농어촌 군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 순위(상위30%) >

순위	종합지수	영역별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1	전북 완주군	경북 울릉군	경기 양평군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전북 완주군
2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충북 진천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충북 증평군
3	전북 진안군	충북 음성군	경북 칠곡군	전남 무안군	충북 보은군	전남 무안군
4	강원 화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곡성군	충남 홍성군
5	충북 진천군	전남 신안군	전북 완주군	강원 횡성군	대구 군위군	강원 인제군
6	강원 인제군	강원 화천군	경북 예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북 진천군
7	강원 양구군	전남 진도군	전남 담양군	강원 정선군	전북 임실군	경기 연천군
8	인천 옹진군	전북 장수군	인천 강화군	전북 완주군	전북 순창군	경기 양평군
9	전북 장수군	경남 하동군	전북 무주군	강원 철원군	경북 고령군	강원 화천군
10	충남 홍성군	대구 군위군	전남 장성군	충남 홍성군	전남 구례군	경북 칠곡군
11	전남 담양군	경북 영양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충북 단양군	강원 양구군
12	전남 무안군	경북 봉화군	경북 청송군	인천 옹진군	충북 영동군	전남 영암군
13	전남 곡성군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전남 담양군	충남 예산군
14	전북 무주군	강원 인제군	전남 무안군	전남 담양군	충북 괴산군	강원 철원군
15	충남 청양군	전북 무주군	강원 양구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전남 화순군
16	충북 증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함양군	전남 영광군	인천 옹진군	전남 영광군
17	충북 음성군	전남 영암군	경북 고령군	충남 금산군	전남 함평군	경기 가평군
18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	강원 평창군	전북 임실군	경북 봉화군	강원 고성군
19	강원 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남 화순군	충북 음성군	경북 영양군	전남 담양군
20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충남 예산군	경북 울릉군	전남 장흥군	전남 장성군
21	전남 영암군	경남 산청군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예천군
22	전남 장성군	충남 예산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강원 양구군	인천 옹진군
23	경남 하동군	강원 평창군	충남 태안군	충남 부여군	전북 무주군	충북 음성군
24	경북 청송군	강원 정선군	경북 의성군	경남 의령군	경남 의령군	경북 울릉군
25	전남 함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옥천군	전북 무주군	경북 청송군	강원 양양군

- 전년대비 상위 30%에 신규 진입한 지역은 전북 무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예산군, 경남 하동군, 경북 청송군, 전남 함평군 6곳

□ (도농복합시) 보건·복지, 환경·안전, 지역활력 영역에서 높게 평가

- 종합지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 이천시, 충남 아산시, 경기 김포시 순
 - 세 지역 모두 '경제, 지역활력'에서 상위권이며, 이 중 이천시와 김포시는 '보건·복지', 아산시는 '문화·공동체'에서 높은 순위
 - 반면, 경기 이천시와 김포시는 '문화·공동체', 충남 아산시는 '환경·안전'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수치가 낮아 균형적인 분포에서 벗어나는 양상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경기 안성시, 전남 나주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4곳

< 도농복합시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 순위(상위30%) >

순위	종합지수	영역별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1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	경기 김포시	충남 계룡시	경북 문경시	경기 양주시
2	충남 아산시	충남 서산시	경기 광주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충남 계룡시
3	경기 김포시	충남 당진시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충남 아산시
4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	대구 달성군	전남 광양시	충남 보령시	경기 이천시
5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충남 계룡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6	충남 서산시	제주 서귀포시	강원 원주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구미시
7	충남 당진시	전남 여수시	경기 이천시	제주 서귀포시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8	경기 파주시	제주 제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경기 여주시	경북 경산시
9	경기 양주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전남 나주시	충북 제천시	경기 김포시
10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주시	대구 달성군
11	전남 여수시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전남 순천시
12	경기 안성시	경기 안성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경북 안동시	강원 원주시
13	전남 나주시	울산 울주군	경남 진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영천시	경기 파주시
14	강원 춘천시	경북 구미시	충남 서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15	전남 순천시	경북 영천시	부산 기장군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참 고

영역별 삶의 질 지표 통계 비교

1. 영역별 지표별 평균값 비교

구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천 원)	고용률(%)		사업체수(개소)		재정자립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경제	농어촌 군	40,386	69.4	70.1	1,870	1,907	10.4	10.5
	도농복합시	45,182	62.5	63.4	8,604	8,691	20.3	20.5
	도시형 도농복합시	45,130	61.8	62.6	28,306	28,645	38.4	38.9

구분		자살사망률(%)		기대수명(세)		긴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예산 비율(%)	
		2022년	2023년	2021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보건·복지	농어촌 군	23.7	25.3	83.0	83.1	5.9	6.0	20.4	20.1
	도농복합시	23.5	25.4	83.6	83.7	5.2	5.4	28.9	29.4
	도시형 도농복합시	21.7	23.4	84.1	84.4	3.3	3.5	34.1	36.3

구분		삶의 만족도(점)		문화시설접근성(분)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0년	2022년	2023년
문화·공동체	농어촌 군	6.5	6.5	26.1	26.3	33.5	76.3	78.0
	도농복합시	6.3	6.3	22.2	22.1	30.7	74.4	75.6
	도시형 도농복합시	6.2	6.2	17.8	18.2	30.2	73.0	73.6

구분		빈집률(%)		지역안전도(등급)		하수도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 처리량(톤/인)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3년
환경·안전	농어촌 군	14.1	14.4	2.9	2.9	71.6	72.7	1.6	1.6
	도농복합시	11.4	11.5	2.9	2.8	86.6	87.8	1.5	1.4
	도시형 도농복합시	7.6	7.8	3.2	3.4	93.5	94.7	1.2	1.3

구분		합계출산율(명)		인구증감률(%)		청년인구 비율(%)		교통접근성(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지역 활력	농어촌 군	1.0	1.0	0.5	0.3	16.0	15.5	100.1	104.8
	도농복합시	1.0	0.9	1.3	1.2	22.2	21.6	34.6	41.0
	도시형 도농복합시	0.9	0.8	1.9	1.4	26.8	26.2	19.4	26.4

주: 지표별 연도는 「2024 농어촌 삶의 질 지수」와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 사용된 각 지표의 통계 자료 기준연도임

2. 영역별 지표별 최소-최대값 분포(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천 원)		고용률(%)		사업체수(개소)		재정자립도(%)	
		최소	최대	최저	최고	최소	최대	최저	최고
경제	농어촌 군	21,415	91,644	56.8	82.1	476	6,531	6.2	26.4
	도농복합시	23,314	124,430	57.1	72.1	1,157	25,806	8.4	43.9
	도시형 도농복합시	18,359	100,445	59.1	67.35	12,854	51,088	25.4	61.1

구분		자살사망률(%)		기대수명(세)		긴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예산 비율(%)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소	최대	최저	최고
보건·복지	농어촌 군	5.2	55.8	81.5	85.8	3.0	8.6	9.1	32.6
	도농복합시	16.7	35.8	82.3	85.4	2.5	10.4	16.5	43.2
	도시형 도농복합시	18.3	31.4	83.4	86.4	1.8	6.2	28.5	46.0

구분		삶의 만족도(점)		문화시설접근성(분)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최저	최고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저	최고
문화·공동체	농어촌 군	6.0	7.34	7.2	71.3	22.9	46.0	55.3	92.9
	도농복합시	5.7	6.97	6.8	37.3	23.6	39.7	63.2	88.9
	도시형 도농복합시	5.8	6.7	11.1	29.3	27.5	35.4	67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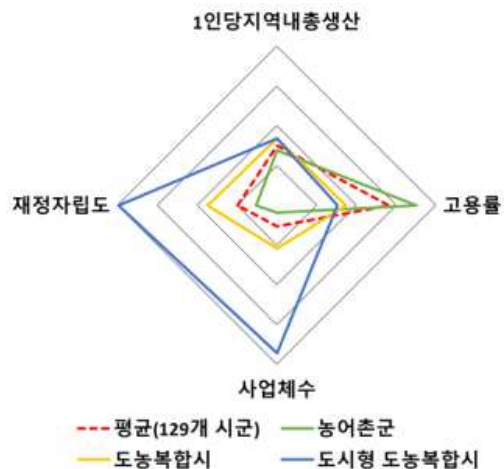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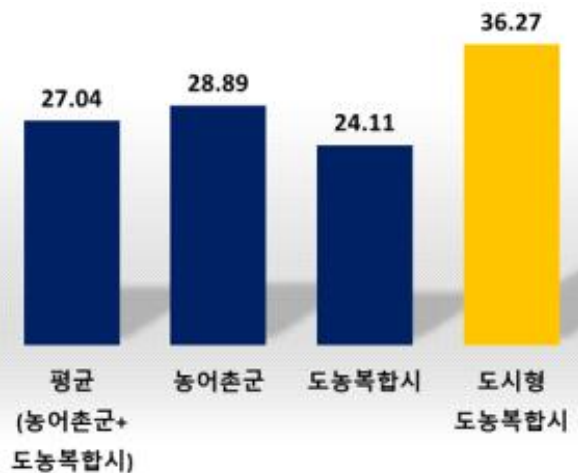
구분		빈집률(%)		지역안전도(등급)		하수도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 처리량(톤/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환경·안전	농어촌 군	4.9	25.1	5	1	8.8	97.9	0.8	5.2
	도농복합시	4.3	17.7	5	1	65.3	98.6	0.9	2.4
	도시형 도농복합시	3.7	12.8	5	1	87.1	98.1	0.8	2.7

구분		합계출산율(명)		인구증감률(%)		청년인구 비율(%)		교통접근성(분)	
		최저	최고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지역 활력	농어촌 군	0.5	1.7	-1.4	7.3	10.6	25.1	45.7	120.0
	도농복합시	0.7	1.4	-0.8	10.5	15.0	27.7	21.8	88.2
	도시형 도농복합시	0.7	1.0	0.1	4.3	21.9	29.6	22.8	33.7

2 영역별 지수

1 경제 영역

- 경제 영역은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와 활력도를 보여주는 지표(GRDP, 고용률, 사업체수, 재정자립도)로 구성
- 농어촌 군 지역(평균 28.89점)이 도농복합시(24.11점)보다 높게 산출되었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형 도농복합시는 36.27점
 - 도농복합시는 농어촌 군에 비해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아 고용률이 낮게 산출되며, 도시형에 비해서는 사업체 수가 적고 재정자립도는 낮아 지수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전년도와 같게 GRDP, 사업체수, 재정자립도 등 산업 기반 지표에서 도농복합시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수준 유지
 - 사업체 수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농어촌 군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
 - * 사업체 수(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소) 1,157개/476개 (최대) 25,806개/6,531개
 - 재정자립도는 세입 구조 차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
 - * 재정자립도(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저) 8.4%/6.2% (최고) 43.9%/26.4%



□ (농어촌 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충북 음성군 순으로 높은 순위

- 경북 울릉군과 청송군은 '고용률', 충북 음성군은 'GRDP·사업체수·재정자립도'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경북 청도군, 충남 예산군, 강원 평창군·정선군 4곳

< 농어촌 군 경제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경제영역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고용률	사업체수	재정자립도
1	경북 울릉군	충북 음성군	경북 울릉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2	경북 청송군	충북 진천군	경북 청송군	경북 칠곡군	충북 음성군
3	충북 음성군	강원 화천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함안군	경기 가평군
4	충북 진천군	경남 함안군	전북 장수군	전북 완주군	경기 양평군
5	전남 신안군	경북 성주군	전남 진도군	경기 양평군	경북 칠곡군
6	강원 화천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양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7	전남 진도군	강원 인제군	전북 무주군	경기 가평군	충북 증평군
8	전북 장수군	경북 고령군	경북 청도군	충북 진천군	경남 함안군
9	경남 하동군	전북 완주군	대구 군위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10	대구 군위군	강원 철원군	경북 봉화군	충남 예산군	전남 화순군
11	경북 영양군	강원 양구군	경남 산청군	전남 영암군	충남 홍성군
12	경북 봉화군	전남 장성군	경남 하동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13	인천 옹진군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경북 성주군	경남 창녕군
14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강원 정선군
15	전북 무주군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강원 홍천군	인천 강화군
16	경북 청도군	경남 하동군	인천 옹진군	충남 금산군	충남 태안군
17	전남 영암군	충남 서천군	전남 보성군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
18	충남 청양군	대구 군위군	경북 의성군	전남 장성군	강원 홍천군
19	충남 태안군	경남 창녕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영광군
20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21	경남 산청군	경기 연천군	전남 장흥군	경남 창녕군	경북 울릉군
22	충남 예산군	경북 울진군	전남 함평군	충남 태안군	강원 평창군
23	강원 평창군	경북 봉화군	전북 부안군	충북 옥천군	강원 영월군
24	강원 정선군	경북 울릉군	강원 인제군	전남 영광군	충북 단양군
25	강원 홍천군	충북 단양군	강원 평창군	전남 고흥군	충남 금산군

[경북 청도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조성]

- 2024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8천만 원 투입)
 - 지역자원을 창업 아이템으로 연계하여 제품 개발 및 브랜드 런칭 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을 넘어, 오프라인 매장 운영까지 확대 지원
- 2025년 ‘054스페이스 조성 사업’ 등 추진
 - 전통시장 일원에 ‘054스페이스’ 조성(창업 실험실, 팝업스토어 등 운영)
 - 기존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소통협력공간’ 조성(입주기업 사무실, 공유오피스 등 지원)
 - 지역활력타운 내 ‘취·창업지원센터’ 및 ‘워케이션 공간’ 설치 추진
 - 직장적응지원 사업,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및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 추진

자료: “청도군 2024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 창출 우수상”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4/12/202412251540405317e594bd8e46_1, 2025.4.28. 검색), “청도군, 2025년 청년 정책 확 달라진다”(경상매일신문,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524827>, 2025.4.29. 검색)

□ (도농복합시) 경기 이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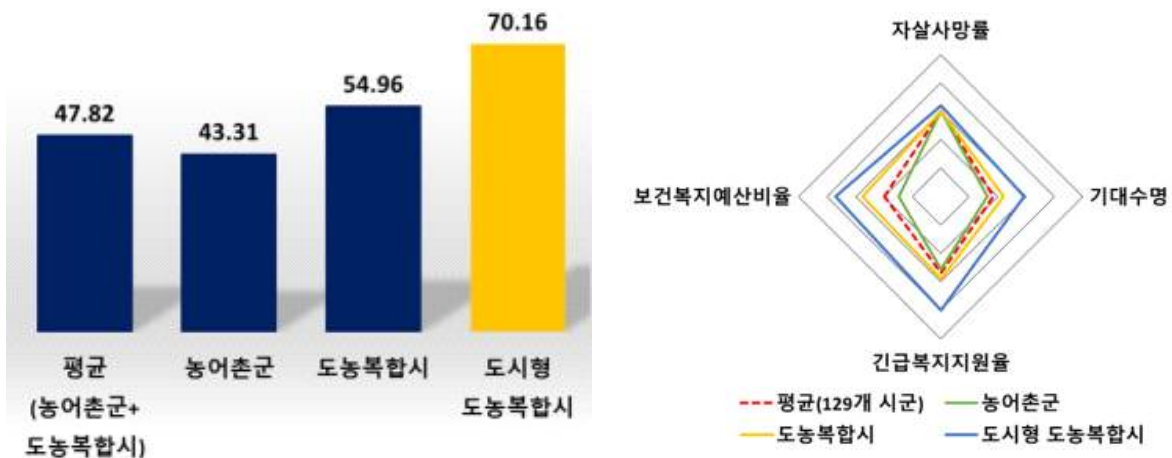
- 경기 이천시는 ‘GRDP·재정자립도’, 충남 서산시와 당진시는 ‘GRDP·고용률’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경북 영천시 1곳

< 도농복합시 경제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경제영역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고용률	사업체수	재정자립도
1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	제주 서귀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이천시
2	충남 서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당진시	제주 제주시	경기 김포시
3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4	충남 아산시	울산 울주군	경북 영천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5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	제주 제주시
6	제주 서귀포시	충남 아산시	제주 제주시	경북 구미시	제주 서귀포시
7	전남 여수시	충남 당진시	전북 김제시	강원 원주시	울산 울주군
8	제주 제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상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파주시
9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전북 정읍시	경남 진주시	경기 안성시
10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전북 남원시	강원 춘천시	대구 달성군
11	경기 파주시	경기 포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12	경기 안성시	전남 나주시	경남 사천시	경기 양주시	전남 여수시
13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기 포천시	경기 양주시
14	경북 구미시	강원 삼척시	충남 논산시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15	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경남 양산시

2 보건·복지 영역

- 보건·복지 영역은 주민 건강 상태와 사회적 안전망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자살사망률, 기대수명, 긴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예산비율)로 구성
 - 농어촌 군 지역은 평균 43.31점, 도농복합시는 54.96점으로 산출되었으며, 도시형은 70.16점
 - 보건복지예산은 도시지역이나 도시와 인접한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편성
 - 지역별 복지 재정 투입 수준의 차이로 지역 간 보건복지예산비율의 편차가 큰 편
- * **보건복지예산비율**(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저**) 16.5%/9.1% (**최고**) 43.2%/32.6%



- **(농어촌 군)** 경기 양평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순으로 상위권
 - 경기 양평군은 모든 지표에서, 충북 진천군은 '긴급복지지원율·보건복지예산비율', 경북 칠곡군은 '보건복지예산비율'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강원 화천군·양구군·평창군, 경남 함양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의성군, 전남 화순군, 전북 무주군·진안군 10곳
- **(도농복합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파주시 순으로 높은 순위
 - 경기 김포시와 광주시는 '기대수명·긴급복지지원율·보건복지예산비율', 경기 파주시는 '보건복지예산비율'에서 상위권
 - * 광주시는 전년 대비 보건복지비율이 6.6%p('22) 29.8% → ('23) 36.4%) 늘면서, 전년대비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의 예산 점유가 확대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강원 춘천시, 경남 진주시 2곳

< 농어촌 군 보건·복지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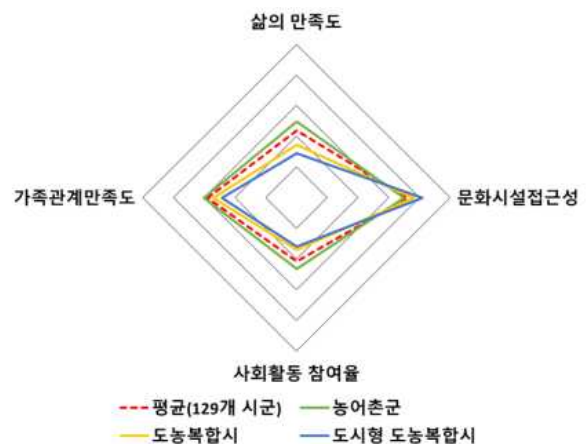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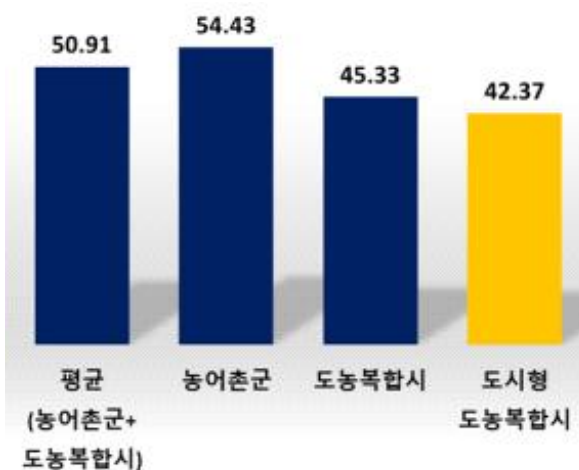
순위	보건복지영역	자살사망률	기대수명	긴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 예산비율
1	경기 양평군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경북 칠곡군
2	충북 진천군	경남 함양군	전북 완주군	충북 진천군	경기 가평군
3	경북 칠곡군	전북 무주군	전남 담양군	강원 평창군	경기 양평군
4	충남 홍성군	전남 장성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충남 홍성군
5	전북 완주군	전북 장수군	인천 강화군	전남 영암군	충북 옥천군
6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충남 홍성군	경북 울릉군	충북 음성군
7	전남 담양군	경북 고령군	전남 곡성군	강원 인제군	전북 완주군
8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경북 의성군
9	전북 무주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예천군	충북 음성군	강원 정선군
10	전남 장성군	강원 화천군	전북 임실군	강원 홍천군	충북 증평군
11	전북 진안군	경북 의성군	전북 진안군	경기 양평군	충북 진천군
12	경북 청송군	경기 양평군	경기 양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창녕군
13	강원 화천군	경남 의령군	전북 장수군	충남 청양군	인천 강화군
14	전남 무안군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	강원 철원군	충남 금산군
15	강원 양구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충남 예산군	경남 함안군
16	경남 함양군	경북 예천군	경북 청송군	충남 태안군	충남 서천군
17	경북 고령군	전북 고창군	전남 구례군	강원 화천군	경북 예천군
18	강원 평창군	충북 진천군	전북 무주군	강원 고성군	충남 태안군
19	전남 화순군	전남 담양군	전남 강진군	강원 양구군	충남 부여군
20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충북 진천군	강원 영월군	전남 영광군
21	인천 옹진군	경북 영덕군	강원 양양군	강원 정선군	전남 무안군
22	강원 정선군	경남 합천군	강원 평창군	충북 증평군	전남 고흥군
23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전남 화순군	대구 군위군	전남 화순군
24	경북 의성군	경북 칠곡군	경남 산청군	전남 장성군	경남 고성군
25	충북 옥천군	전남 강진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남해군

< 도농복합시 보건·복지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보건복지영역	자살사망률	기대수명	긴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 예산비율
1	경기 김포시	경북 상주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파주시
2	경기 광주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충남 계룡시	강원 원주시
3	경기 파주시	전북 김제시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경기 김포시
4	대구 달성군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경기 김포시	부산 기장군
5	충남 계룡시	경북 영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이천시	대구 달성군
6	강원 원주시	전남 순천시	제주 제주시	충남 당진시	경기 양주시
7	경기 이천시	전북 남원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전북 익산시
8	전남 순천시	대구 달성군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
9	경북 구미시	부산 기장군	전북 남원시	경북 구미시	경기 광주시
10	강원 춘천시	경북 문경시	강원 춘천시	울산 울주군	경북 경산시
11	충남 아산시	전남 여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12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경기 파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군산시
13	경남 진주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경남 거제시	경북 구미시
14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	강원 원주시	경기 파주시	강원 강릉시
15	부산 기장군	경북 영주시	경남 진주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3 문화·공동체 영역

- 문화·공동체는 주민의 주관적 만족감과 지역 내 사회적 관계 형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삶의만족도, 문화시설접근성, 사회활동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로 구성
 - 농어촌 군 지역은 평균 54.43점, 도농복합시 45.33점이며, 도시형은 42.37점
 - 농어촌 군은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으며, 도농복합시는 문화시설접근성이 용이
 - 문화시설접근성은 두 유형 모두 최소 소요 시간은 유사하나, 최대 시간에서 농어촌 군 지역이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지역 간 편차 존재
- * 문화시설접근성(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소) 6.8분/7.2분 (최대) 37.3분/71.3분
- 일부 지역은 도시형 도농복합시보다 문화시설접근성이 양호
 - * 도시형 도농복합시 문화시설접근성 (최소) 11.1분 (최대) 29.3분



- (농어촌 군) 전북 진안군, 충남 서천군, 전남 무안군 순으로 상위권
 - 전북 진안군과 전남 무안군은 '삶의만족도·사회활동참여율', 충남 서천군은 '삶의 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전북 진안군·고창군·완주군·임실군, 강원 정선군, 전남 곡성군·신안군, 충남 금산군, 충북 음성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11곳

< 농어촌 군 문화공동체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문화공동체 영역	삶의 만족도	문화시설접근성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1	전북 진안군	인천 용진군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군	인천 강화군
2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강원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3	전남 무안군	강원 횡성군	전남 담양군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
4	전북 고창군	강원 정선군	경북 칠곡군	강원 양구군	충북 음성군
5	강원 횡성군	전남 무안군	충북 진천군	경남 남해군	전북 완주군
6	충남 청양군	강원 철원군	강원 철원군	전북 무주군	충남 홍성군
7	강원 정선군	전남 곡성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8	전북 완주군	전남 담양군	충남 예산군	전남 영광군	전북 순창군
9	강원 철원군	전북 고창군	경남 함안군	전남 구례군	충북 증평군
10	충남 홍성군	충남 서천군	충남 홍성군	충남 홍성군	강원 영월군
11	전남 곡성군	전북 완주군	전북 완주군	전북 진안군	충북 괴산군
12	인천 용진군	전남 신안군	강원 양구군	전남 곡성군	강원 횡성군
13	강원 양구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성군	전남 무안군	충남 청양군
14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경북 성주군	전북 장수군	경북 칠곡군
15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충남 청양군	경북 울릉군	경기 양평군
16	전남 영광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군	충남 부여군
17	충남 금산군	전남 영광군	충남 금산군	전남 함평군	강원 평창군
18	전북 임실군	경남 의령군	전남 영광군	충남 태안군	충남 금산군
19	충북 음성군	전남 보성군	전남 진도군	경남 하동군	강원 인제군
20	경북 울릉군	전남 장성군	강원 양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영양군
21	강원 화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덕군	경남 거창군	충북 진천군
22	전남 신안군	강원 양구군	전남 강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화천군
23	충남 부여군	강원 화천군	전남 영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양양군
24	경남 의령군	충남 금산군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전북 임실군
25	전북 무주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전남 해남군	경북 의성군

[전북 진안군: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상생]

-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친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 가족사업 통합 및 주민 참여 소통 공간 조성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안전한 돌봄 환경 마련
-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주민주도 상생사업 추진
 - 진안고원치유숲, 전북자치도 치유관광지 선정('24) 및 체류형 관광 유도(진안고원 마이스테이, 4색에너지 충전소 조성 추진 등)
 -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진안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진안군청, <https://www.jinan.go.kr>), “진안군 전역으로 퍼지는 선순환 경제구조 만든다”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30117580091>, 2025.4.29. 검색)

- (도농복합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충남 아산시 순으로 높은 순위
- 충남 계룡시는 모든 영역에서, 전북 정읍시는 ‘삶의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 충남 아산시는 ‘삶의 만족도·문화시설접근성·가족관계만족도’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전북 남원시·익산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경기 여주시, 강원 춘천시 6곳

< 도농복합시 문화공동체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문화공동체 영역	삶의 만족도	문화시설접근성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1	충남 계룡시	충남 계룡시	충남 계룡시	제주 서귀포시	전북 남원시
2	전북 정읍시	전북 정읍시	경기 양주시	전남 광양시	충북 제천시
3	충남 아산시	전남 순천시	대구 달성군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
4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	경기 파주시	충남 공주시	제주 서귀포시
5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전북 익산시
6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
7	제주 서귀포시	경기 여주시	충남 아산시	충남 서산시	경북 경산시
8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성군	경기 김포시	충남 계룡시	강원 삼척시
9	전남 나주시	전남 여주시	경기 광주시	강원 강릉시	충남 아산시
10	충북 제천시	전북 남원시	전북 군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계룡시
11	충남 서산시	전북 익산시	부산 기장군	전북 정읍시	전북 김제시
12	경기 여주시	제주 서귀포시	전남 광양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13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	경북 경주시	강원 강릉시
14	전북 군산시	강원 삼척시	전북 김제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15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전북 군산시	경기 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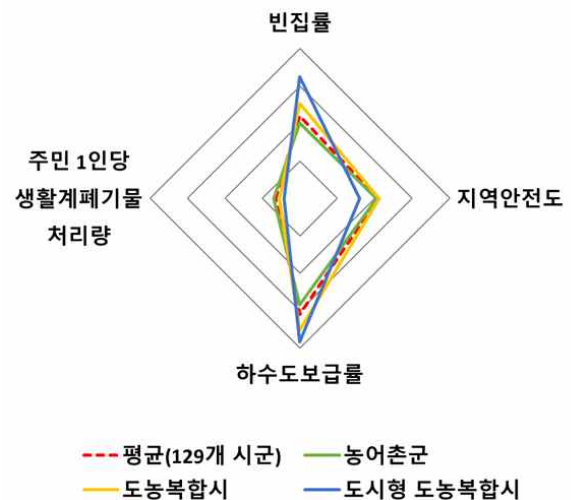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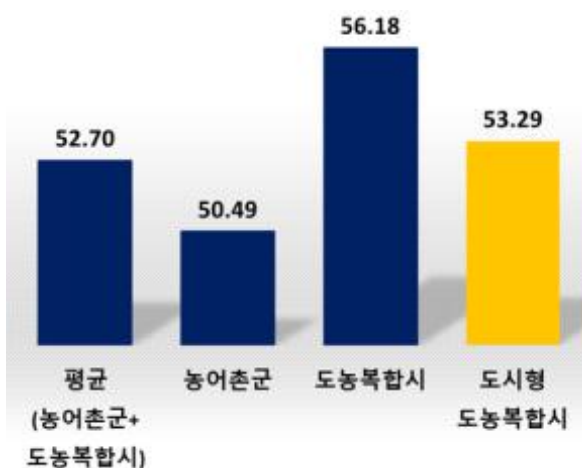
[전북 남원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 폐산업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달빛정원’과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 조성
 - 지역민 주도의 창작 활동 제공 및 관광자원 개발, 열린 문화 쉼터 제공 등
-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 추진 중
 - 함파우 유원지 일대를 자연과 예술, 문화 세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자원과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
 -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문화 공간 확보 및 관광 활성화 기대

자료: “남원시,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 ‘달빛정원’ 개관 예정” (아시아뉴스전북, <https://www.m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97>, 2025.4.28. 검색), “울곧게 피어나다 - 전북 남원-” (지역문화진흥원 웹진 49호 2024.10., https://roda.or.kr/webzine/202410/detail_point1.jsp, 2025.4.29.. 검색)

4 환경·안전 영역

- 지역 주민이 거주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빈집, 지역안전도, 하수도보급률, 생활계폐기물처리량)로 구성
 - 농어촌 군 지역은 평균 50.49점, 도농복합시 56.18점이며, 도시형은 53.29점
 - 도농복합시는 인프라 및 환경 지표에서 도시형에 비해 낮았으나, 지역 안전등급에서의 상대적 우위가 이를 상쇄하여 영역 지수가 높게 산출
 - * 지역안전등급(평균): (도시형 도농복합시) 3.4 < (군) 2.9 < (도농복합시) 2.8
 - 생활환경 관련 지표인 빈집*과 하수도보급률**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큰 편
 - * 지역유형별 빈집률(%): (도시형 도농복합시) 7.8 < (도농복합시) 11.5 < (군) 14.4
 - ** 지역유형별 하수도보급률(%): (군) 72.7 < (도농복합시) 87.8 < (도시형 도농복합시) 94.7
 - 특히, 하수도보급률에서 농어촌 군은 하한선이 매우 낮아, 기초 생활 기반 격차가 크게 발생
 - * 하수도보급률(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저) 65.3%/8.8% (최고) 98.6%/97.9%



- (농어촌 군) 전북 장수군, 전북 진안군, 충북 보은군 순으로 상위권
 - 전북 장수군과 진안군은 '빈집률·지역안전도·하수도보급률'에서, 충북 보은군은 '지역안전도'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전남 구례군·신안군, 충북 단양군, 경남 하동군, 인천 옹진군, 경북 청송군 6곳

[전남 구례군: 지역 안전을 위한 정책 사업]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도입으로 지역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 강화

- 군청 관제실에 통합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법, 교통, 재난 등 안전 정보 통합 관리
-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청, 소방청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골든타임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자료: “구례군, 신속하게 주민안전 책임진다” (AIT타임즈,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22>, 2025.4.29.. 검색)

< 농어촌 군 환경·안전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환경안전 영역	빈집률	지역안전도	하수도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
1	전북 장수군	경북 울릉군	대구 군위군(공동1위)	충북 증평군	강원 양양군
2	전북 진안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공동1위)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3	충북 보은군	경기 연천군	충북 보은군(공동1위)	강원 양구군	충북 음성군
4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임실군(공동1위)	충북 옥천군	강원 고성군
5	대구 군위군	경북 성주군	충남 청양군(공동1위)	경남 거창군	강원 인제군
6	충남 청양군	충북 괴산군	전북 진안군(공동1위)	강원 고성군	경북 울진군
7	전북 임실군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공동1위)	충북 진천군	경북 고령군
8	전북 순창군	강원 철원군	전북 순창군(공동1위)	전북 진안군	경북 칠곡군
9	경북 고령군	전북 진안군	경북 고령군(공동2위)	전북 완주군	충북 옥천군
10	전남 구례군	전북 장수군	인천 용진군(공동2위)	전북 장수군	인천 용진군
11	충북 단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단양군(공동2위)	전남 함평군	강원 양구군
12	충북 영동군	강원 인제군	경북 울릉군(공동2위)	경남 하동군	충북 진천군
13	전남 담양군	경남 함안군	충북 괴산군(공동2위)	강원 양양군	경북 영덕군
14	충북 괴산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영양군(공동2위)	전남 화순군	충북 단양군
15	경남 하동군	충남 부여군	경북 청송군(공동2위)	경남 남해군	경북 울릉군
16	인천 용진군	전남 진도군	경남 합천군(공동2위)	강원 평창군	강원 평창군
17	전남 함평군	대구 군위군	전남 신안군(공동2위)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18	경북 봉화군	강원 영월군	경북 봉화군(공동2위)	전북 부안군	강원 영월군
19	경북 영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함평군(공동2위)	강원 정선군	전남 보성군
20	전남 장흥군	경북 고령군	전남 담양군(공동2위)	충북 영동군	대구 군위군
21	전남 신안군	인천 용진군	경남 하동군(공동2위)	경남 함양군	강원 홍천군
22	강원 양구군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공동2위)	충남 금산군	강원 화천군
23	전북 무주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공동2위)	경남 창녕군	전남 무안군
24	경남 의령군	전남 해남군	전남 구례군(공동2위)	강원 철원군	경북 영양군
25	경북 청송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영동군(공동2위)	충북 보은군	전남 해남군

주: 1) 지역안전도는 등급으로 진단하여 등급별 동점 석차가 다수 발생함

2) 지역안전도의 공동 2위는 총 20개 지역이며, 이 외에 전남 장흥군, 전북 무주군, 경북 의성군이 있음

□ (도농복합시) 경북 문경시, 충남 계룡시, 전북 남원시 순으로 높은 순위

○ 경북 문경시와 전북 남원시는 ‘지역안전도’에서, 충남 계룡시는 ‘지역안전도·하수도보급률’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전남 나주시, 충북 제천시 2곳

- 제천시는 전년 대비 지역안전도가 2등급((’22) 4등급 → (’23) 2등급) 올랐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도농복합시 환경·안전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환경안전 영역	빈집률	지역안전도	하수도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1	경북 문경시	경기 김포시	경북 문경시(공동1위)	경남 양산시	경북 안동시
2	충남 계룡시	경기 광주시	충남 보령시(공동1위)	경북 구미시	경남 통영시
3	전북 남원시	경기 파주시	전북 남원시(공동1위)	전남 광양시	제주 서귀포시
4	충남 보령시	강원 춘천시	전북 김제시(공동1위)	울산 울주군	제주 제주시
5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충남 계룡시(공동1위)	부산 기장군	강원 삼척시
6	전북 김제시	경기 이천시	전남 나주시(공동1위)	충남 계룡시	경기 여주시
7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북 영주시(공동2위)	경기 양주시	충남 논산시
8	경기 여주시	부산 기장군	경기 양주시(공동2위)	경기 광주시	경기 포천시
9	충북 제천시	경기 포천시	충북 제천시(공동2위)	전남 순천시	경북 영천시
10	경북 영주시	경북 경산시	경기 여주시(공동2위)	경기 파주시	경북 경주시
11	충남 논산시	경남 양산시	충남 논산시(공동2위)	강원 춘천시	전남 여수시
12	경북 안동시	대구 달성군	충남 공주시(공동2위)	경남 진주시	경기 이천시
13	경북 영천시	울산 울주군	경북 영천시(공동2위)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14	경북 김천시	경북 구미시	경북 김천시(공동2위)	제주 제주시	경북 문경시
15	강원 삼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공동2위)	제주 서귀포시	충남 보령시

주: 1) 지역안전도는 등급으로 진단하여 등급별 동점 석차가 다수 발생함

2) 지역안전도의 공동 2위는 총 14개 지역이며, 이 외에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밀양시, 경북 안동시, 강원 삼척시가 있음

5 지역활력 영역

□ 인구 유지와 정주 기반의 접근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합계출산율, 인구증감률, 청년인구비율, 교통접근성)로 구성

- 농어촌 군 지역은 평균 21.96점, 도농복합시 49.08점이며, 도시형은 60.99점
- 지역별로 교통접근성 격차*가 두드러졌으며, 청년인구 비율** 역시 12%p 이상 차이를 보이며 지역 활력 수준에서 편차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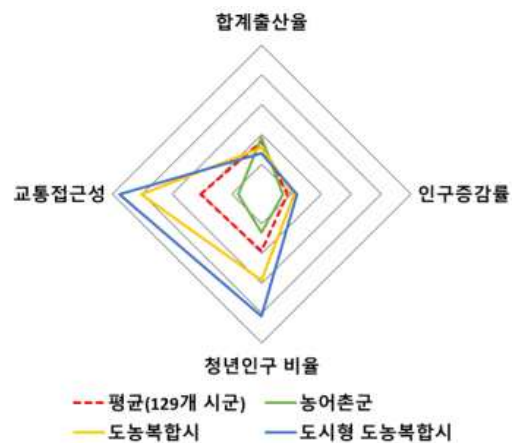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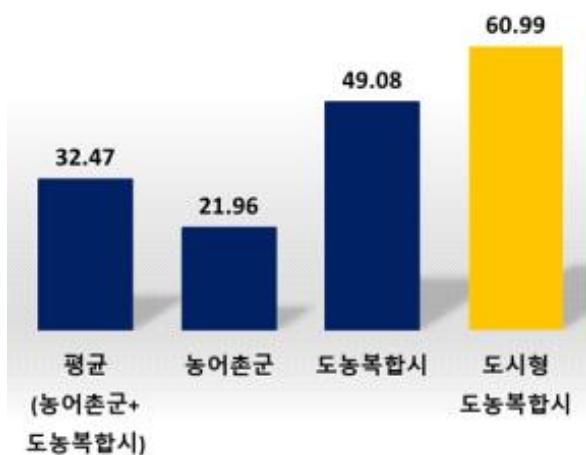
* 교통접근성(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소) 21.8분/45.7분 (최대) 88.2분/120분

** 청년인구 비율(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소) 15%/10.6% (최대) 27.7%/25.1%

-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인구 증가 지역의 수는 줄었으며*, 인구 감소 지역이 증가**

* (인구 증가) 농어촌 군 ('23) 51곳 → ('24) 40곳, 도농복합시 ('23) 46곳 → ('24) 42곳

** (인구 감소) 농어촌 군 ('23) 28곳 → ('24) 35곳, 도농복합시 ('23) 3곳 → ('24) 4곳



□ (농어촌 군) 전북 완주군, 충북 증평군, 전남 무안군이 상위권

- 전북 완주군과 충북 증평군은 '인구증감률·청년인구 비율·교통접근성'에서, 전남 무안군은 '청년인구 비율·교통접근성'에서 우세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강원 화천군, 전남 장성군 2곳
 - 장성군 전년 대비 교통접근성이 5.1분('22) 96.1분 → ('23) 90.9분) 감소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감소폭 기록

< 농어촌 군 지역활력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지역활력 영역	합계출산율	인구증감률	청년인구 비율	교통접근성
1	전북 완주군	전남 영광군	전북 완주군	강원 인제군	충남 홍성군
2	충북 증평군	전남 강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	전북 완주군
3	전남 무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릉군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4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전남 무안군
5	강원 인제군	강원 인제군	전남 영암군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6	충북 진천군	경북 청송군	충남 예산군	전남 무안군	전남 담양군
7	경기 연천군	전북 진안군	경북 의성군	강원 철원군	경기 양평군
8	경기 양평군	전북 임실군	경북 고령군	인천 옹진군	전남 화순군
9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충남 금산군	경기 연천군	경기 연천군
10	경북 칠곡군	강원 화천군	경기 가평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함안군
11	강원 양구군	전남 장흥군	전북 순창군	경북 칠곡군	충남 부여군
12	전남 영암군	강원 철원군	충남 홍성군	충북 음성군	충남 예산군
13	충남 예산군	전남 함평군	충북 단양군	충남 홍성군	전남 영암군
14	강원 철원군	경북 예천군	강원 인제군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15	전남 화순군	경북 성주군	충남 청양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16	전남 영광군	전남 신안군	강원 고성군	전남 화순군	경기 가평군
17	경기 가평군	전남 고흥군	경남 거창군	경북 울릉군	충북 옥천군
18	강원 고성군	전남 장성군	충북 진천군	전남 영광군	인천 강화군
19	전남 담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무안군	강원 홍천군	강원 고성군
20	전남 장성군	전북 장수군	강원 양양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
21	경북 예천군	강원 홍천군	전남 신안군	경북 울진군	충남 서천군
22	인천 옹진군	전남 보성군	강원 횡성군	경기 양평군	경남 고성군
23	충북 음성군	대구 군위군	전북 진안군	경남 거창군	경북 예천군
24	경북 울릉군	충북 증평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충남 금산군
25	강원 양양군	경북 울진군	전북 무주군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 산업단지 조성 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기존 320만 평의 산업단지에 50만 평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추가로 조성하여 전북 최대 규모 산단 집적화
- 산업단지를 주축으로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 주거단지를 개발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젊은 세대 유입

[강원 화천군: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

○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 입주자에게 5년간 월 임대료 90% 감면 혜택 제공 및 자녀 1명 출산 시 감면 기간 5년 자동 연장
- 정부의 주거·보육 통합지원 모델 마련과 연계하여 성공 사례 확산 검토

자료: “완주군 인구 10만명 돌파 카운트다운”,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50407580175>, 2025.4.29. 검색), “[기획] 맞춤형 주거 정책 통한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지역 어디?”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707>, 2025.4.29.. 검색)

□ (도농복합시) 경기 양주시, 충남 계룡시, 충남 아산시가 상위권

- 경기 양주시는 ‘인구증감률’에서, 충남 아산시는 ‘인구증감률·청년인구 비율’, 충남 계룡시는 ‘인구증감률·교통접근성’에서 우세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남 양산시 2곳
 - 양주시는 전년 대비 인구증감률이 6.5%p(‘22) 4% → (‘23) 10.5%) 늘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경기 양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마련]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 아래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4대 추진과제 마련
 - ①든든한 출산·양육 지원 및 돌봄 사회조성, ②일·가정 양립 및 가족 행복 증진, ③인구변화 적응과 사회 참여 확대, ④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
 - * 경기 북부 시·군 중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인구 증가 추세(‘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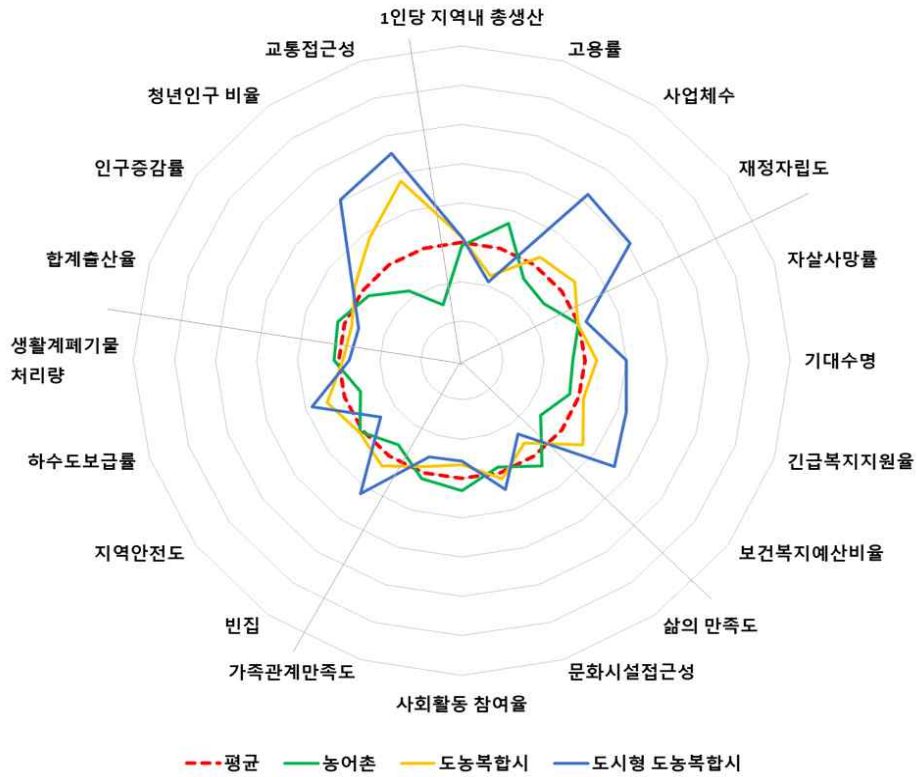
자료: 양주시청 언론보도(<https://www.yangju.go.kr>, 2025.5.1.. 검색), “양주시,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발표” (서울경제TV,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502280155#rs>, 2025.5.1. 검색)

< 도농복합시 지역활력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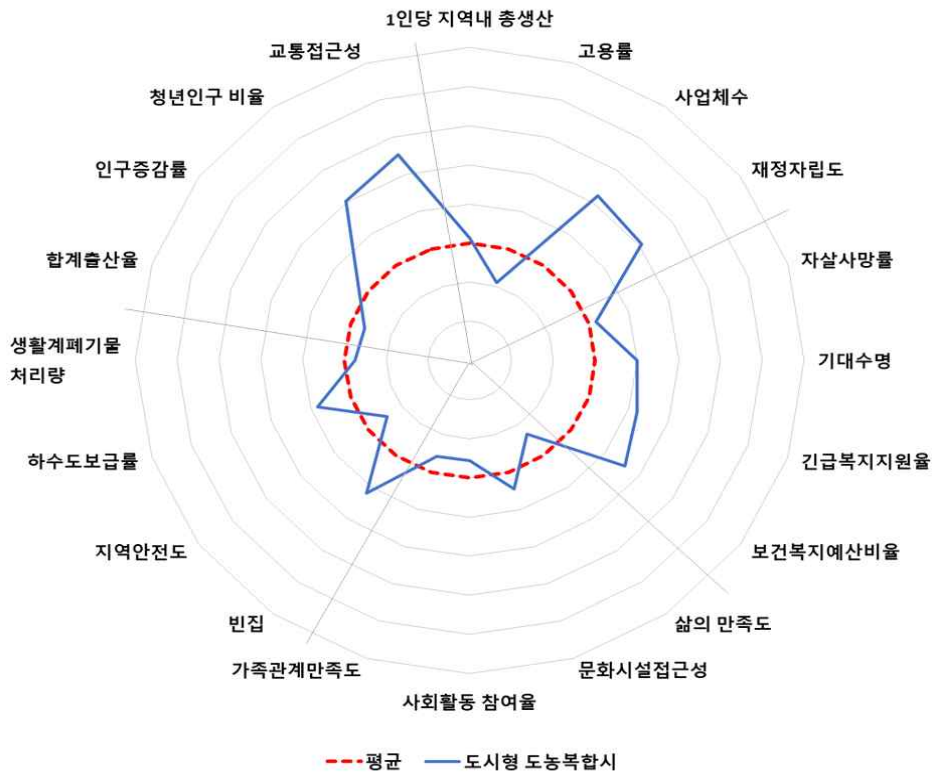
순위	지역활력 영역	합계출산율	인구증감률	청년인구 비율	교통접근성
1	경기 양주시	전북 김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김포시
2	충남 계룡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계룡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3	충남 아산시	경북 영천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
4	경기 이천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기 파주시	부산 기장군
5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
6	경북 구미시	대구 달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경산시	충남 계룡시
7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경남 양산시	강원 원주시	전북 익산시
8	경북 경산시	충남 서산시	경북 영주시	경기 광주시	전남 순천시
9	경기 김포시	울산 울주군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전북 군산시
10	대구 달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경산시	경기 김포시	전남 여주시
11	전남 순천시	경북 상주시	충남 서산시	경기 양주시	충남 아산시
12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강원 춘천시	대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13	경기 파주시	경기 양주시	경남 사천시	전남 광양시	경기 파주시
14	경남 진주시	충북 제천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기 광주시
15	경남 양산시	경북 문경시	부산 기장군	경남 진주시	경남 통영시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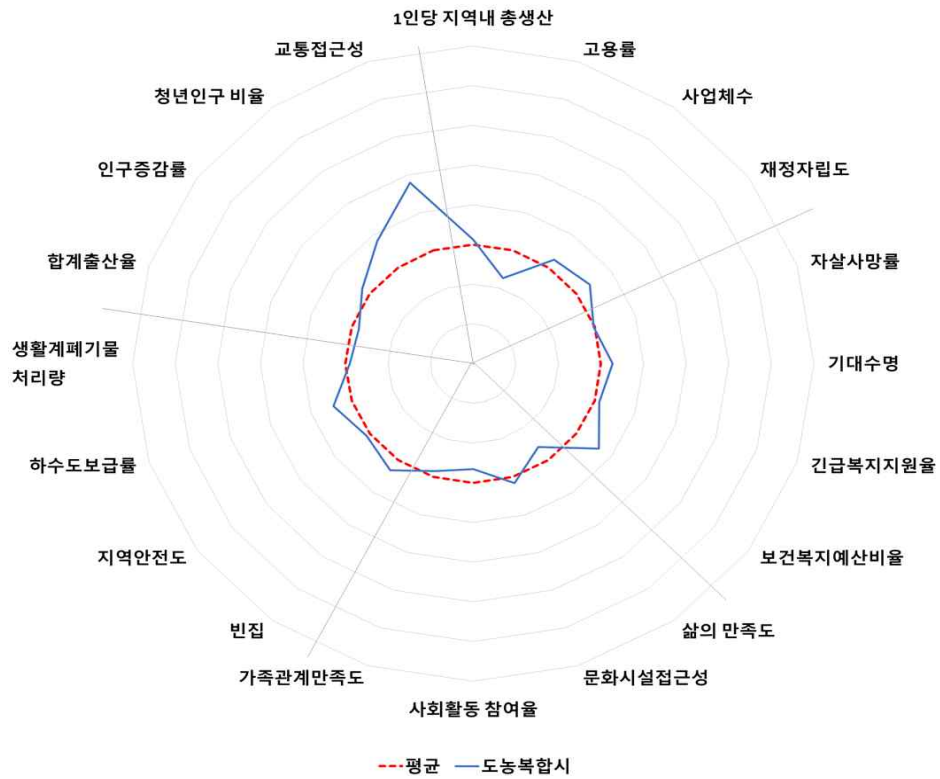
유형별 20개 지표 평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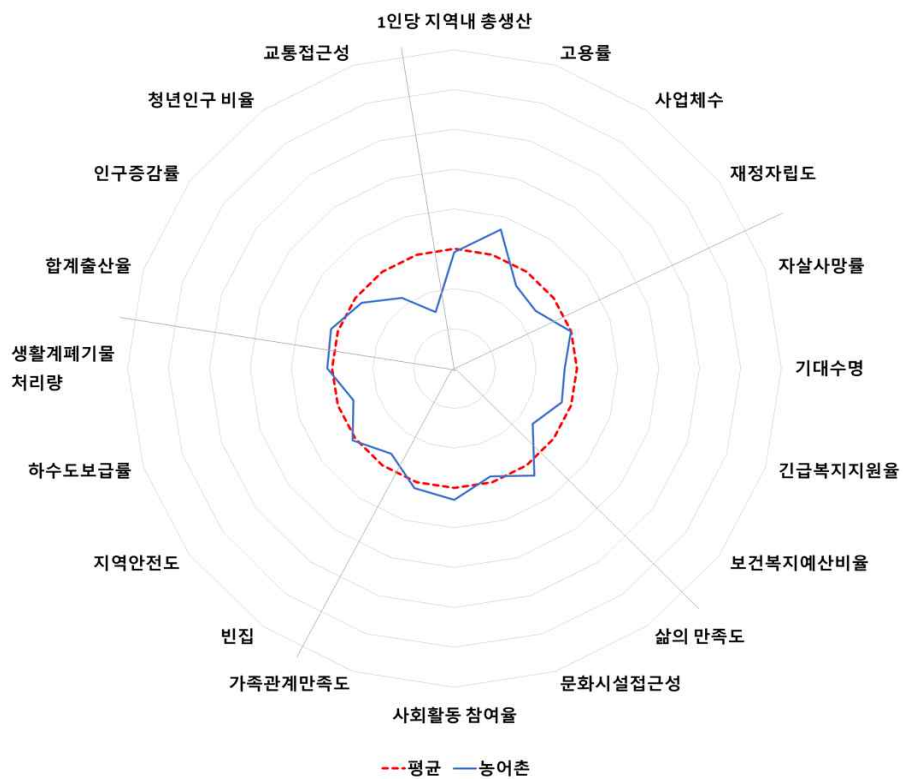
< 유형별 지표별 분포 현황 >



< 도시형 도농복합시 지표별 분포 현황 >



< 도농복합시 지표별 분포 현황 >



< 농어촌 군 지표별 분포 현황 >